미신밀착형 삶에 종지부 찍기

(요한복음 5장 1~9)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미신밀착형 삶에 종지부 찍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미신밀착형 삶에 종지부 찍기'

저는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일반 부대들보다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럴 때면 부대원들이 화투 놀이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할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은 인원이 모자라서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 선임들이 강제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스톱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결국 개념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스톱 판에 끼게 되었는데, 판세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내야 될 패인지 감추어야 될 패인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판을 깬다는 이유로 선임들이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저와 대비되는 강 병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은 고스톱의 기술이 신기에 달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화투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뭘 내려고 하면 "너 그거 내면 죽어"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잘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화투만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안경에 화투패가 다 비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날 그렇게 고스톱 판에 끼어서 욕을 실컷 먹고는 다시는 고스톱 판에 안 끼어도 되는 면책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면책특권이었지만 사실은 절대 끼워주지 않겠다는 금지 명령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고스톱에 대한 상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상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 "보통사람으로서 으레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스톱 판과 같이 판이라는 말을 붙이면 좀 더 현실감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어떤 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이 상식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은 의심이나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스톱 판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 고도리가 무엇이고 피박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상식이 있을 때에 판은 쉽게 벌어지고 편안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상식은 또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기본이 됩니다. 매번 가르쳐가면서 함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참 상식 밖의 질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것이 타당할까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안 낫기를 원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 불필요한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목회자로써 참 많은 환자들을 심방해왔습니다. 제가 전도사 목사 시절을 지나며 수많은 환자를 방문해 봤지만 저는 예수님과 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낫기를 원치 않는 환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얼핏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이유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따지고 보면 질문 자체는 문법적이나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문제입니다. 무려 38년 된 병자를 상대로 이 말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은 병을 고치기 위해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상식이 없어 보이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과 지배층에게 외면당하셨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는 말문이 막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고치신 사건을 예로 들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마구 몰려와서 부딪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누가복음 8장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 밖에서 참된 의미를 물으시는 분이셨기에,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도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입니다. 예루살렘에는 60만 명이 모이는 시기였기에 무척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베데스다 연못에 와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병자와 장애인들이 가득히 모여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고 기록한 대로 치유의 기적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미신 같은 민간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지하의 온천수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온천수가 때때로 분출할 때마다 물이 움직였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때에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천사의 하늘기운으로 인해서 어떤 병에서든지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보편적으로 알려지며 민간 신앙으로써 전승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면접 보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든지, 수능시험장 학교 정문에 엿을 붙여놓는 것과 같은 미신이었던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경쟁자를 이기고 물에 들어왔다는 성취감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효과가 작용할 수는 있겠다는 정도의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상식 밖의 질문 외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 또한 상식 밖입니다. 낫고 싶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행여 만에 하나라도 낫는 것도 싫었으면 아니라고 대답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일종의 핑계에 가깝게 깁니다.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던지는 말과 받는 말이 이어지지 않고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자의 대답을 들으니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굳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이 병자가 현재 소원하는 것이 정말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일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병자의 소원은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할 때에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

가는 행위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정황을 알아채시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답을 위해 병자에게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병자가 처음 병에 걸렸을 때에 여러 가지 치료법을 다 동원해보았을 것이고, 그래도 병이 낫지 않자 소문을 따라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다른 병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동할 때마다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38년이나 첫 번째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병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움직임에 장애가 있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이 동하고 모든 병자가 필사적으로 연못을 향해 달려갈 때에 이 병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뿐이었습니다. 그 난리 통에서도 안간힘을 쓰면서 연못을 향해 기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며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 년에 몇 번이나 물이 동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때마다 물에 들어가려고 이를 악물고 혼신의 힘을 다하기를 반복하는 동안 마음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38년 동안 연못을 바라보는 동안 소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병이 낫는 것은 2차 3차의 소원일 뿐입니다. 병이 낫든 못 낫든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일곱 번이나 사법고시에 도전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이 일곱 번 떨어지고 여덟 번째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에 제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도전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본인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법고시를 시작하시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판검사가 되어서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한 번 기여해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참 판에 박힌 대답이지만 갸륵할 정도로 옳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을 실패하는 동안 마음의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나라의 정의나 정계의 도덕 따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판검사 안 해도 좋습니다. 그저 사법고시 일차 시험에 붙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주변이 다 교수가 되기 위해 유학 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박사과정이 자율입니다. 교수에 따라 다소 다르겠습니다만 지도교수가 있어도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보면 10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런 세월이 지속되다보면 나중에는 교수가 목적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저 박사학위를 마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수단 자체가 쥐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수단이 곧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바로 이렇게 목적이 뒤바뀐 상황을 아시고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할 때마다 달려가는 다른 병자들을 보며 땅을 치며 원통해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더 이상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안 나아도 좋으니 물이 동할 때에 첫 번째로 들어가 보고 싶다는 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안식일의 의미와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써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안식'이란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던 기쁨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문제는 세상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사가 환부를 수술하듯이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누구도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낫고 싶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한 채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는 미신에 불과한 규칙을 호소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들만 모여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1차적인 관심은 누가 병에서 낫느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 성공 또한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성공하는 자였습니다. 누가 인생에서 선택받은 자입니까? 병이 낫는 자라는 의식 대신에 제일 먼저 연못으로 들어가는 자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그것에 달려있고, 그렇게 된 자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이 미신이 절대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이 미신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생각하면서 모두가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사회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사회에서 통용되던 상식과 규칙을 무시하시고 깨뜨리시기 위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낫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으로 전제되어 있기에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식에 맞추어 질문을 하신다면 "네가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도 그렇다고 바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

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이 병자의 대답이 변명처럼 돼버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서 잊혀져버린 본래 목적에 대해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공통 관심사는 행복입니다. 아무도 인생의 연못가에서 다른 사람에게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압니다. 세상에는 이 질문 앞에서 "예"라고 대답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계속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은 "예"가 아닙니다. "주님! 자녀가 말썽입니다. 남편이 문제입니다. 아내가 문제입니다. 취직이 문제입니다. 승진이 문제입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라는 대답이 차례차례 나올 것입니다. 결코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마음에서 세상이 준 미신 같은 규칙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법에 걸렸습니다. 마음이 마귀의 속임수와 저주에 걸려버린 채 그것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없어서 병이 낫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건강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그 밖에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직장, 정기적인 휴가와 여행, 명품과 외제차, 자녀가 형통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인이 늘어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상가를 벗어나서 크게 지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만 병이 낫는다는 미신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미신밀착형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원을 물어보실 때에 행복 하고 싶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안식을 얻기를 바란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미신 같은 규칙들을 붙잡고, 행복과 조건과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붙잡고 이루어 달라며 철야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미신밀착형 의식을 이어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미신적인 연못가의 규칙에 38년 동안 자기 생을 걸고 있었던 병자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행복 자체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미신적

인 조건과 규칙을 이루게 해달라고 조르는 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행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 평안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뛰어가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행복은 인간 사회가 만든 어떤 조건이나 규칙과도 무관합니다. 행복은 마치 독립되어져 있는 물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과는 어떤 것과도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내 상태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려는 참 평안과 행복과는 무관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인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조건으로 통용되는 미신들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행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껏 해온 신앙생활은 곧 “예수님 감사합니다만 필요 없습니다. 굳이 저에게 평안을 끼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돈 문제만 조금 해결해 주시면 저의 평안은 해결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참 세상 모르시네요. 제발 사람 웃기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서 일류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의 평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제가 지금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다 자녀 때문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기존의 기도가 이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는 그래야만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속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사업 문제만 해결해주세요.”라는 기도에는 예수님의 그 출중하신 능력을 기껏 평안 따위에 소비하지 말고 인간 세상의 연못 사회가 정해둔 규칙 몇 가지만 이루어달라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미신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통용되고 있는 규칙과 같은 세상의 규칙들이 마음에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빗겨가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였습니다. 세상의 규칙으로는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에서 평안과 행복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사장에서 굴착기로 벽을 부수듯이 억지대판으로 세상의 규칙을 부수고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스데반 집사님의 행복과 평안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조차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강력한 평안을 뿌리치고 세상의 미신을 따르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돈도 없고 몸에 병이 들었고 자녀들이 문제라면 더더욱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세상의 미신을 믿는 것일까요? 어디까지나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자녀는 형통해야만 하고 취직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신밀착형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왜곡됩니다. 38년 동안 낫기를 소망한 끝에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누리게 되었다는 식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초점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특별히 주님의 기적을 사인으로 여깁니다. 기적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암시하는 표지판의 역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이는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려는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의 모습을 안식과 연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평강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행복은 삶의 마지막에서나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행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는데 서로에게서 기쁨을 얻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미신밀착형에 사로잡힌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각자가 주님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기 전에는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내 안에 행복이 가득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 행복하리라는 기대는 미신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지는 모든 규칙들 신념체계 가치체계는 미신입니다. 먼저 행복하지 않은데 하루를 살면 안 됩니다. 행복은 세상과 관계없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학생들이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에 컨테이너를 빌려서 짐을 쌉니다. 그리고 집을 다 싸고 이제 컨테이너 문을 닫기 직전에 독일 맥주를 한 박스 집어넣습니다. 이때 넣는 맥주는 색이 짙은 흑맥주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삿짐을 풀어주시는 아저씨들에게 드리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도 왜 하필이면 마지막에 넣느냐고 또 물었더니 한국에서 짐을 푸는 분들에게 컨테이너 문을 열자마자 맥주를 제일 먼저 보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하기 전에 일단 한 잔씩 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더 순조롭게 이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이 끝나고 수고하셨다고 맥주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인생이라는 일이 다 끝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행복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의 남편이 외국회사의 아시아지역 사장이셨

습니다. 이제 나이가 60대가 되셨는데 여전히 몸은 건강하시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건강진단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갑자기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손을 내밀라고 하더니 위에서 아래로 누를 테니 버텨보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대로 버텨보려고 하는데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버틸 수가 없으셨답니다. 결국 정밀검사를 해보았더니 온 몸의 혈관이 100년 된 하수도처럼 막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왔는데 그러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못가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간호하시는 권사님이 말끝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의아해서 “권사님 이렇게 되셨는데 감사하다니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제 설교를 권하셨는데 남편이 마뜩찮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물인간이 되셔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도 들으시라고 귀에 헤드폰을 씌워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식물인간이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교만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권사님의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 아버지는 식물인간이 되어있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환자 간호에 매달려 있습니다.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권사님이 아들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오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자꾸 감사하고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대체 무엇이 기쁘다는 건지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권사님께서는 차를 세우고 아들에게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세계 석학들의 강연을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석학도 지금 기쁘고 행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며 행복을 향해 나가자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석학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조차 행복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들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행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조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참혹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굴착기로 죽음이라는 두꺼운 벽마저 뚫으시고 행복을 넣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행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몸이 아파서 행복하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와의

불화, 자녀의 문제들도 나의 행복과 관련해서는 모두 미신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암벽을 뚫는 굴착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미신밀착형 의식구조를 가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미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삶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병이 낫는 것과는 관계없이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을 소원하게 되었듯이 행복하기보다 돈을 벌기만을 바랍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평생 배우자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실은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한 미신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수가 줄어들고 영적 활력이 사라졌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심심찮게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라는 덩어리가 개혁되어야 내 삶도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의 삶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삶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종교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미신밀착형 의식구조가 깨져야만 합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인부들이 먼저 맥주를 마셨을 때에 기분 좋게 일해서 이사가 쉬워지는 것처럼, 먼저 행복할 때에 삶은 여유가 생기고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않으면 하루의 삶이 시작되어서는 안됩니다. 평안하고 기쁘지 않다면 배우자를 대면하지 마세요. 기쁨과 행복 없이 서로를 마주하는 동안 너 죽고 나 죽기가 됩니다. 내가 미신에 사로잡혀서 행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참 안식을 원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에 병이 나서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하지 못할 이유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몸이 아파서 행복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사업이 망해서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살아나야 제가 감옥에 안 가요.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 저 행복 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하세요.
행복은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죽기 직전까지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조차도 행복과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은 이렇듯 삶의 어떠한 조건

도 뚫고 들어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에서 미신밀착형 의식구조만 없애면 됩니다.
망했어도 병이 났어도 자녀가 문제라도 주님의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라는 물음에 '주님! 저 행복 할래요.'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가지고 나서 세상을 대하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게 커보이던 문제들이 이제 내 발에 치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지구촌 베데스다 연못 같은 사회가 만들어낸 미신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네가 행복하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네! 주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나에게로 와라'고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미신들은 언제라도 우리 마음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 주님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미신밀착형의 의식구조를 깨뜨린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현장에 임했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참수당하기 전날 베드로에게 임했던, 풍랑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행복과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주시려고 하신 그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저희가 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원죄의 체질은 미신밀착형의 의식구조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실 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